EDITORIAL

J Korean
Neuropsychiatr Assoc
2019;58(1):1-1
Print ISSN 1015-4817
Online ISSN 2289-0963
www.jknpa.org

항정신병약물의 현재와 미래

간행위원,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

김 세 현

Present and Future of Antipsychotics

Se Hyun Kim, MD, PhD

Department of Neuropsychiatry,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, Seoul, Korea

이번 호 신경정신의학 특집은 “항정신병약물 임상적용과 작용기전의 최신지견”이라는 제목으로 네 편의 종설을 실었다. 1950년대부터 도입된 항정신병약물은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넘어 정신병의 기전을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었다. 뇌신경과학과 제약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항정신병약물의 재발 및 적용의 확대에 이어졌다. 최근까지 이어진 다양한 항정신병약물의 개발 및 출시는 정신병 치료의 큰 진보를 이루었다. 또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개발 확장은 순응도 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. 이러한 임상적 진보에도 불구하고, 항정신병약물에 의한 대사 부작용은 큰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. 지금까지의 항정신병약물 개발은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작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, 도파민, 세로토닌 수용체를 넘어 최근 글루타메이트 및 아세틸콜린 수용체 작용 중심의 약제 개발이 이어져 왔다. 그러나 신경전달물질 수용체를 표적으로 한 약제 개발은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,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. 이번 특집에서는 이에 대한 종설들을 구성하여 발표

한다. 첫 번째 논문은 항정신병약물 임상역사의 역사와 미래의 제하에 그동안의 항정신병약물의 발견과 개발 역사를 돌아보고 이에 기반하여 다가올 미래에서의 새로운 방향성을 알아보았다. 두 번째 논문은 항정신병약물의 작용 기전으로서 수용체를 넘어서는 작용 기전의 고찰과 종합을 통해 항정신병작용이 지닌 생물학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. 세 번째 논문은 항정신병약물에 의한 대사부작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질적 임상 대처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. 네 번째 논문은 최근 항정신병약물 처방에서 주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실질적 임상 사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. 신경정신의학 간행위원회가 준비한 네 편의 특집 종설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과 전공의들에게 항정신병약물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소견과 임상적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. 또한 진료와 연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특집 원고 청탁을 수락해주시고 좋은 원고를 작성해 주신 저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.